

농작업 사고 사망률 30% 낮춘다

안전보건 교육 확대 · 전문관 활용 사고예방 교육 강화 등 농진청, 2024년까지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수립 · 시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제 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2020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확대에 따라 농업분야 노동재해 발생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주도의 농업 안전재해 예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농업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 재해율에 비해 약 1.5~2배 높으며, 일반 제조업 재해율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분야 재해 감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 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을 비전으로 하여 2024년까지 농업작업 사망사고를 30% 경감을 목표로 2019년 11월에 수립됐다.

2020년 시행계획에는 4대 부문 38개 세부과제(774억원, 국비 및 지방비 포함)가 포함되어 있으며, 분야별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단위 안전재해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담당관이 참석하는 안전재해예방 협의회를 운영하여 예방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정과 협력한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인식을 높이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확대 및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활용해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작목, 농업인 특성 등을 고려해 안전재해 예방 교육을 기존 농업인대학, 신규농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에 편성, 확대한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 R&D, 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농업환경의 건강 위험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 편입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한다.

국가 주도의 농작업재해 예방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현장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의 담당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농작업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직업적 재활을 위하여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

업(영농도우미)' 사업을 수행한다.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성공을 위해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농작업 안전관리 문화 확산에 노력한다.

'2020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은 기존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소득증대 중심 정책에서 농업인, 즉 사람 중심의 지원이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직업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의 산재 예방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이 목표한 바를 충실히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자체, 농업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은 7월까지 '미래농업인 육성 교실'을 운영한다.

미래농업 이끌 주인공 육성

농진청, 내달까지 '미래농업인 육성 교실' 운영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의 소중함과 농촌진흥기관의 역할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7월까지 '미래농업인 육성 교실'을 운영한다.

농촌진흥청은 전북도 완주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해 초등학교 6개 학교 31개 학급 335명과 중학교 1개 학교 8학급 210명의 참가신청을 받았다.

미래농업인 육성 교실은 평소 음식으로만 접했던 작물을 실제로 보고 화분에 옮겨 심어보는 활동을 통해 농업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또한 식량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농작업과 연구 등의 정보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실에서는 현재 영농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농업 기술을 알리고, 농촌진흥청의 역할과 하는 일 등 기관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진

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참가 학생들이 땅콩, 수수, 기장 등의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는 체험 활동도 통해 작물별 특성과 재배 요령을 터득하고 수확의 기쁨도 얻을 수 있도록 이룰 것이다.

1일에 열린 수업에 참여한 소양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미래농업인 육성 교실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급식할 때 농산물을 키워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참가 학생 전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에 발열, 기침, 인후통 여부를 확인했으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시로 발열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준용 과장은 "미래농업인 육성 교실이 지역사회 교육과 고 있는 디지털 농업 기술을 알리고, 농촌진흥청의 역할과 하는 일 등 기관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진

경진원, 소셜벤처 경연

1차 설명회 8일 개최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사회적경제분야를 이끌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0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사업설명회를 8일 오후 2시부터 소셜벤처스 온 전북(성장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회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셜벤처 정의, 소셜벤처 경연대회 소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해를 돕기 위한 자세한 안내와 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소셜벤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모델을 말하며,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이러한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회이다.

대회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소셜벤처 사업화 계획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총 4개 부문(청소년, 대학생, 일반, 글로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대회는 예산심사, 권역심사, 본선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부문별 최대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최종입상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별도 심사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JB문화공간서

나성인 초청 클래식 강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JB문화공간에서 지난 4일 문화살롱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성인의 클래식 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올해로 탄생 250주년을 맞이한 대음악가 베토벤의 일생과 음악의 의미를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조망하는 세 번의 시리즈 강연 중 첫 번째 시간이다. '베토벤, 아홉개의 교향곡' 저자이기도 한 나성인은 클래식 공연기획과 해설, 예술가곡 특히 독일 가곡 문학코치로 활동하며 현재 음악 저널 예술 감독을 맡고 있다.

나성인 강사는 베토벤이 불멸의 연인과 주고 받은 편지와 사대사적 흐름을 통해 인물들을 찾는 과정을 설명하며, 그 인물이 베토벤의 작품에 끼친 영향을 음악을 통해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정적이고 웅장한 작품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던 베토벤이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잃는 과정에서 영혼이 한단계 도약하며 그 시절 '월광소나타', '안단테 파보리', '교향곡 4번', '현악4중주 16번'과 같은 수많은 서정적인 곡들을 창작해내는 과정들을 특유의 논리적인 화법으로 풀어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북전주세무서는 지난 5일 조지훈 원장과 봉삼중 서장 등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도내 소상공 · 창업자 경쟁력 강화 '맞손'

경진원-북전주세무서,협약 체결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과 북전주세무서(서장 봉삼중)가 도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경진원에서 조지훈 원장과 봉삼중 서장 등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양 기관은 업무협력 증진을 통해 세무 관련 전반에 걸친 교류를 넓히고

세무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현장상담실 운영 △연차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성과 제고 △도내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추진 등이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하여 세무 관련 애로사항 해소로 도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북전주세무서 봉삼중 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상담소, 교육 프로그램 등 내실화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세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진원과 북전주세무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이후 '찾아가는 세무서(현장상담실)' 운영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현장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세무 관련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중기 공제기금 대출금리 0.6%p 한시적 인하

중기중앙회,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p 한시적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올 연말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할인(0.6%p)이 적용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지난 35년 동안 총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공제기금 대출의 90%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중저신용 신용등급 대출비율이 68%에 달하는 등 담보역량이 부족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며, 금융기관의 보완

재 역할과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금리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이차보전)과 같이 1만6,500개사 중소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기금 제도에도 정부 이차보전 매칭이 필요하다"며,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한 공제기금의 장점에 정부 이차보전을 더해 저금리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도산(폐업) 방지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직접성 있는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금리인하 외에도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금납부 기한 유예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및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1~3%) △장기기업자 우대 할인

(0.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방과후학교 강사 저금리 대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은 오는 23일까지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저금리 대출에 나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농협은행 모바일 앱(올원뱅크)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 확인을 거쳐 교육청에서 추천하면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3.3%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3년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가축 다양성 정보시스템 등록 후보 가축 모집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내달 10일까지 신청접수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가축 다양성 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할 후보 가축을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DAD-IS에 등록된 긴꼬리닭

DAD-IS는 전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적인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이다. 시스템 등록은 가축유전자원의 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내 자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199개국 38축종 1만 5천여 종의 품종정보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가축은 15축종 120품종이 포함돼 있다.

DAD-IS 등록 후보 가축은 소, 돼지,

닭 등 38축종을 대상으로 하며, 재래종과 국내육성 품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기업인은 보유하고 있는 가축생명자원(생축)의 기초 조사표와 해당 가축의 고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우편이나 방문(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또는 전자우편(angs@korea.kr)으로 제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축산소식→소식 및 행사→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가축유전자원센터(055-960-3522~3)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LX,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공공에 무료 개방

올 하반기부터 실용화 위해

LX 공간정보연구원(원장직무대행 이화영)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공공에 무료 개방한다.

공간정보연구원은 2015년부터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결과물인 '지능형자동차 인식기술 공개용 표준 데이터베이스(DB)'가 올해 행정안전부의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총리와 주요부처 장관, 관련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안전으로 선정된 후 지원대상과제로 최종 선정된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LX는 오는 6월부터 '자율

주행 인공지능 인식기술 활성화를 위한 융합 DB 서비스 구축 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모든 데이터를 공공에 무료 공개한다.

LX는 이번 사업을 통해 6월부터 2개년 동안 자율주행 인식기술 개발지원 데이터를 공공에 공개하고, 데이터 기반 활용분야 확산을 위해 활용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융합 DB 서비스 구축 사업에서 공개하는 '자율주행 인식기술 개발지원 데이터'는 실제도로에서 수집한 다양한 센서 데이터와 기준정보,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공간정보의 융합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